

연구와 전시

세계 곳곳에 한국 문화유산을 전합니다 | 국외 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
한 권 한 권, 충분한 소장 가치 | 2024년 국립박물관 출판물
간절함을 마주하는 시간 |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거울, 시대를 비추다>

기억의 서랍

새로 담을 역사의 그릇

사람과 이야기

작은 조각들이 빚어낸 소중한 가치 | 한국 도편 목록화 프로젝트
선사·고대관, 시간 위에 다시 세우다 | 개편을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진묘수! 여기는 어디? | 국립공주박물관이 만든 그림책





04
국의 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



14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거울, 시대를 비추다>



22
박물관 건축에 담은 한국적 조형 언어와 철학



28
2025 선사·고대관 개편을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5년 4월 1일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강경남 곽흥인 류정환 이민수 이진민 이태희
이현주 전인지 최성애 황은순 황지현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제호 최순우
디자인 큐라인
사진 박재홍
인쇄 (주)태광피앤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44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연구와 전시

- 04 전시
세계 곳곳에 한국 문화유산을 전합니다
- 10 2024년 국립박물관 출판2
한 권 한 권, 충분한 소장 가치
- 14 전시
간절함을 마주하는 시간
- 18 교육
쉽고 재미있게 만나는 우리 문화유산!

사람과 이야기

- 20 잠시 멈춤
봄을 알리는 목련과 굴뚝새
- 22 기억의 서랍
새로 담을 역사의 그릇
- 26 K-뮤지엄
작은 조각들이 빚어낸 소중한 가치
- 28 인터뷰
선사·고대관, 시간 위에 다시 세우다
- 32 출판
나는 진료수! 여기는 어디?
- 34 주요 소식
- 36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 38 굿즈
- 39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백 가지 행복, 한국문화 특별전〉 한복을 주제로 한 '기쁨의 색채' 전시실 모습

세계 곳곳에 한국 문화유산을 전합니다

국외 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협력하며 한국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전시 협력으로 한국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그 노력과 성취가 올해는 독일 드레스덴과 미국 덴버에서 새로운 결실을 맺었다.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에 대한 교환전시, 미국 덴버박물관 한국실의 특별전시를 각각 개최한 것. K-컬처에 환호하는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더 깊이 있게 즐기게 할 기회, 우리 문화유산의 거점을 더 튼튼히 세울 계기가 될 '특별한' 전시 소식을 전한다.



미국 덴버박물관에서 개최한 한국미술 특별전 〈한국의 달항아리, 다시 차오르다〉 전시실 모습

백 가지 행복, 한국문화 특별전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특별전
2025.3.15.~8.10.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SKD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드레스덴 성에서 특별전 <백 가지 행복, 한국문화 특별전>으로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인을 관람객으로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왕이 사랑한 보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의 교환 전시로,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을 유럽의 문화 중심지인 드레스덴에서 소개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가 개최되는 독일 작센주의 주도 드레스덴은 중세 이후 알프스산맥 이북에서 유럽 문화를 선도해 온 도시로, ‘엘베강의 피렌체’로 불린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드레스덴박물관연합은 1560년 작센 공작 아

우구스트의 궁정박물관에서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박물관 중 하나로, 현재 작센주 내 15개 박물관의 통합기구이다. 아울러 전시 장소인 드레스덴 성은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장소이자 2차 세계대전 폭격 피해 후 복원이 진행 중인 도시 역사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특별전은 드레스덴 성의 두 곳에서 열린다. 2층 대의전실(948㎡)의 9개 방에서는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인다. ‘기쁨의 색채’에서는 한복의 멋을, ‘풍요와 안식’에서는 토기에 나타난 삼국시대의 바람을, ‘신앙의 숨씨’와 ‘자비의 약속’에서는 고려·조선시대 불교미술을, ‘비색의 아름다움’과 ‘절제와 품격’에서는 고려청자-분청사기-백자로 이어지는 우리 도자기의 미를 보여준다. ‘찬란한 권위’, ‘용기와 기개’에서는 궁중 복식과 군사 복식·무기를, ‘행복한 삶’에서는 행복을 기원하는 병풍을 전시한다. 성 1층 신그린볼트박물관 특별전시관(55㎡)에서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이 펼쳐진다.

전시는 여러 시대에 걸쳐 제작된 185건 349점의 소장품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대규모 한국문화 특별전이 독일에서 개최된 것은 1999년 독일 에센과 뮌헨에서 개최된 <한

국 고대 왕국-무속, 불교, 유교> 이후 25년 만에, 가야·신라의 상형 토기, 고려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기린 모양 청자향로, 조선 달항아리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국외 전시에는 중앙뿐 아니라 경주·대구·부여·김해 등 소속박물관의 소장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특성화된 주제를 담아냈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도 포함하였다. 또한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고 이영희 기증 ‘바람의 옷, 한복’과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병풍 ‘평생도’, ‘디지털 돈보기’ 등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문화의 잠재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전시의 백미는 국보 <금관총 금관과 금허리띠>로 196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예박물관 <한국 국보전> 이후 60여 년 만에 독일을 찾아왔다. 당시에도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국보 <관모>와 <새날개 모양 관꾸미개>, 귀걸이, 팔찌, 금제 그릇 등 금관총 출토 금제품의 전모와 최근 금관총 재발굴 성과를 담은 동영상도 함께 제공하여 신라 금공예의 우수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새날개 모양 관꾸미개>는 이번 전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포스터에 활용되었다.

다수의 한국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드레스덴박물관연합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소속기관인 라이프치히 그라시민족학박물관 GRASSI Museum für Völkerkunde zu Leipzig 소장품을 포함해 조선시대 병풍, 갑옷과 무기 등 10점을 출품했다. 라이프치히 그라시민족학박물관은 20세기 전반 세계 각지의 물산을 수집하며 다량의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구입했고, 조선의 외교고문을 역임했던 뮐렌도르프 Paul Georg von Möllendorff (1848~1901) 등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조선과 대한제국을 방문했던 독일인 여행자의 컬렉션을 포함해 2,000여 건의 우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백수백복도 百壽百福圖> 자수 병풍은 특별전 제목에 영감을 주었다. 또한 낱장 상태로 보관되어 전시가 어려웠던 <곽분양행락도 郭汾陽行樂圖> 병풍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지원으로 원형 복원 후 처음 공개되었다. 이처럼 이번 특별전은 국외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편, 대중문화가 선도했던 K-컬처의 외연을 넓히고 그 영감의 원천을 탐구하는 행사도 마련하였다. 먼저 전시 기간 중 한국문화주간(2025.5.26.~6.1.)으로 전통 요소와 현대무용을 결합한 개막 퍼포먼스와 한복 체험



배모양토기

가야
5~6세기
높이 20cm
전화5330
이견희 기증



대삼작도리개

조선
길이 42.5cm
중1130
이영희 기증

워크숍이 열리고, 이후 6월 12~13일에는 한국학 학술심포지엄(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후원)으로 한국 역사와 미술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특별전에 깊이를 더하고 독일 내 한국학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처럼 국립중앙박물관과 드레스덴박물관연합이 공동 개최하는 특별전 <백 가지 행복, 한국문화 특별전>은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 드레스덴 박물관연합 명품전>에 이어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화 교류의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 주요 박물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의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 다양성을 함께 나누는 공존의 박물관’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의 여러 면모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함으로써 유럽 내 높아지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다양성과 깊이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는 8월 10일까지로 6개월간 동안 유럽의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글. 김혁중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고려시대 불교미술 및 금속공예 전시 ‘신앙의 숨씨’



개막식에서 인사하는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특별전 속 특별전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 <한국의 달항아리, 다시 차오르다> 사전공개회 모습



전시실 전경

한국의 달항아리, 다시 차오르다

미국 덴버박물관 한국미술 특별전
2025.3.2.~6.8.

미국 덴버박물관(Denver Art Museum)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 전시 지원 사업 참여 기관으로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특별전시 개최, 한국 현대 작가 연계 프로젝트를, 한국 실 담당 인력 채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특별전시 <무심한 듯 완벽한, 한국의 분청사기>[Perfectly Imperfect: Korean Buncheong Ceramics](이하 <분청사기>)에 이은 두 번째 한국미술 특별전 <한국의 달항아리, 다시 차오르다>[Lunar Phases: Korean Moon Jars](이하 <달항아리>)가 3월 2일부터 미국 중부의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원하는 2025년 첫 우리 문화유산 국외전사이기도 한 이번 덴버박물관의 달항아리 특별전은 여러 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백자대호
조선 18세기
높이 41.2cm, 최대 지름 45.7cm
수정22
박병래 기증



백자대호
조선 18세기
높이 45.5cm, 최대 지름 43.2cm
진회1568
이진희 기증

달항아리는 조선 후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특수한 백자이다. 보름달처럼 희고 둥글지만 한편으로 살짝 이지러진 모양과, 순백이 아니라 우유나 흰 눈 같기도 한 색감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달항아리만의 특징이다. 달항아리의 양면적 특징은 유교 사회 조선에서 예의와 절제를 중시하던 선비들의 반듯한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안분지족하는 순박한 마음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달항아리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 많은 이들을 매료시켜 왔다. 20세기 초부터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 1887-1979), 김환기(1913-1974), 최순우(1916-1984) 등 많은 국내외 예술가, 미술사학자들이 달항아리의 매력에 빠져 달항아리를 모으고, 그림으로 그리고, 시적인 이름도 붙여 주었다. 이후에도 현대인들의 달항아리에 대한 사랑은 식은 적이 없으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달항아리 위로 타오르고, BTS의 RM이 권대섭 작가의 달항아리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을 때 모두 감지했듯 달항아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달항아리 3점을 비롯한 전통 달항아리 6점, 현대

달항아리 6점, 그리고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회화, 사진, 비디오, 설치미술 등 다양한 현대미술 9점이 출품되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달항아리를 조명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문화유산 국외전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효율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순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많았지만, 이번 전시는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신라>,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의 2020년 <한국의 불상>과 2022년 <한국의 치미>, 그리고 2023년 덴버박물관의 <분청사기> 특별전처럼 특정 장르와 유물에 천착하는 새로운 심화 전시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 미술의 집중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현대미술을 함께 선보여 한국미술의 지속과 변용의 가능성을 전달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출품작 중에는 한국의 저명한 근현대 작가뿐만 아니라 젊은 재미교포 작가들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그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전시는 K-컬처의 새로운 방향도 제시한다. 지난 2022년부터 영국 런던과 미국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개최되며 많은 인기를 모



Brown Moon Jar
Steven Young Lee
2024
지름 38.1cm
Denver Art Museum
©Denver Art Museum



달항아리
김민재
2023
높이 68.58cm
Denver Art Museum
©Denver Art Museum

은 특별전 <한류Hallyu! The Korean Wave>가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에 집중하였다면 이번 달항아리 전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순수 현대미술을 미국 관람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K-컬처의 확장을 모색하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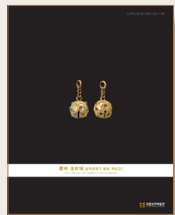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순수미술과 대중문화를 아우르며 새로운 K-컬처를 미국에 소개하는 달항아리 특별전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두 한국인 큐레이터에 의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된 전담 인력이며, 전시 기획 단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견한 학예연구사가 현지에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인력 지원이 단순 유물 대여와 교환 전시 개최를 넘어 미국 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한국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에 중요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여러 의미를 가지는 덴버박물관의 특별전 <한국의 달항아리, 다시 차오르다>는 6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글. 류승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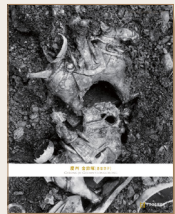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

18 | **경주 남산 석조관음보살입상 보존처리 및 조사**
소장품의 보존처리와 조사, 연구에 대한 자료 축적과 활용을 위해 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불두, 1970년대에 확인된 불신의 입수 경위, 1997년 접합 복원한 남산 석조관음보살입상의 보존처리 내용을 정리했다. 2023~24년에 실시한 해체 및 재보존처리, 과학적 조사 내용과 각 부재에 대한 3D 조사 기반 실측·기본 도면이 포함되었다.
220×285mm | 125p | 비매품 | ISBN 979-11-91318-18-0



19 |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제52집-

경주 금령총(일제강점기 발굴 재보고)
1924년 발굴된 금령총의 무덤 구조와 출토품을 재보고한 것으로 금령총 발굴과 보고서 간행 과정, 봉분, 적석, 부장품을 소개했다. 부장품은 장신구·마구·옹기·무기·농공구·의기·철기·기타로 분류해 재보고하고, 부록에는 안고 보존처리, 출토 직물 현황, 출토품 성분분석을 담았다.
220×285mm | 370p | 비매품 | ISBN 979-11-91318-19-7



20 |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제53집-

경주 금령총(종합연구)
1924년 발굴부터 현재까지 금령총의 연구를 종합했다. I장에는 금령총 발굴의 의의, II장에는 금령총 봉분, 적석, 매장시설, III장에는 부장품 구성, 개별 부장품 연구성과, IV장에는 금령총 호석 제사의 성격, V장에는 금령총 출토품의 보존과학 성과, VI장에는 금령총 발굴 100주년 심포지엄 내용을 소개한다.
220×285mm | 355p | 비매품 | ISBN 979-11-91318-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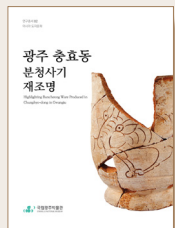
21 | 신라물문연구 17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및 경주 관련 관내 소장품에 대한 학술 연구 진작에 기여하고자 2007년 『신라물문연구』를 창간했다. 매년 1회 발간하며 신라 및 경주 관련 신자료의 소개 등을 통해 신라학 연구의 최신 동향 등을 알렸다. 2024년 12월 발간한 17집에는 총 7편의 원고가 수록되었으며, 『신라물문연구』는 이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180×250mm | 127p | 비매품 | ISSN 1976-6270



국립광주박물관

22 | **박동춘 기증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 제2권-시문편**
초의선사와 19세기 조선 한양과 호남지역의 문인들이 주고받은 시문 총 16건을 모아 번역했다. 자하 신위와 그의 제자 박영보가 각각 남긴 「남다시병서」와 「남다병서」를 비롯해 다산의 아들 유산 정학연, 우봉 조희룡과 해거 홍현주 등 한양의 문인들이 초의선사를 만나고 초의자를 맞본 감동을 노래한 작품이 담겨 있다.
185×250mm | 304p | 비매품 | ISBN 978-89-86824-73-5



23 |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총서 2-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재조명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최한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재조명’ 학술대회 발표문을 보완 및 정리한 연구총서이다. 충효동 요지 발굴 이후 60년 께적과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충효동 분청사기 연구와 요지 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172×230mm | 242p | 비매품 | ISBN 978-89-86824-72-8



24 | 아시아 도자문화 제23호, 제24호

아시아 도자문화의 교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뉴스레터이다. 제23호는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도자기, 풍류를 품다〉, 제24호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의 소개를 중심으로 국내외 도자 전시, 도요지 발굴 조사, 학술대회 소식 등을 담았다.
210×297mm | 16p | 비매품



국립전주박물관

25 | 2024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학술총서-

청동기·철기Ⅱ 청동 거울
만경강 유역 초기철기시대 금속제 소장품 조사의 두 번째 결실로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거친무늬 거울과 잔무늬 거울의 고해상도 사진과 현미경 사진, X-ray, XRF 자료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한·중·일 청동 거울의 문양 및 형식 변천, 서남한 지역 청동 거울 부장묘와 소국의 형성, 성분 분석 및 해석 등을 주제로 6편의 논고를 담았다.
225×280mm | 243p | 비매품 | ISBN 979-11-87804-11-6



국립대구박물관

26 | **2024 국립대구박물관 소장품조사연구 10: 직금 저고리의 복원과 16세기 복식문화**
웅인 영덕동 무연고묘 출토복식은 2005년 발굴 후 2013년부터 국립대구박물관이 소장해 관련 전시와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직금 저고리 복원사업의 결과물로 웅인 영덕동 출토복식의 현황과 구성, 조선 시대 묘제의 특징, 직금 직물의 제작과 복원 등 16세기 출토복식의 특징과 직금 저고리의 복원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210×280mm | 180p | 비매품 | ISBN 979-11-983345-3-4



27 | 1994-2024 국립대구박물관 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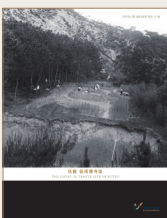
2024년 12월 7일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년을 맞아 12월 6일 발간했다.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직원, 자원봉사자 등의 주관적 ‘기억’과 연혁·전시·소장품 관리 등 객관적인 ‘기록’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책은 크게 ‘기억’, ‘기록’, ‘더하기’로 구성했으며 서른다섯 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국립대구박물관의 역사와 추억을 만나볼 수 있다.
150×210mm | 250p | 비매품 | ISBN 979-11-983345-7-2



국립부여박물관

28 | 백제금동대향로를 이야기하다-

30년 전 그들, 발굴의 기억
1993년 12월 이루어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기록을 담은 자료집이다. 2023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해 12월 주요 발굴조사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과정과 전후 상황을 조명했다.
188×255mm | 177p | 비매품 | ISBN 979-11-86567-25-8



29 |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제51집-

부여 가탑리사지
박물관 소장품과 고적조사보고 등 관련 문헌은 물론 개인 자료와 당시의 기사 및 해방 후 인근 지역 수집품과 발굴 성과를 함께 수록했다. 이를 토대로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 가탑리사지 일대가 사비도성의 한 구역으로 개발되는 고고학적 맥락에서 유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도록 했다.
220×285mm | 160p | 비매품 | ISBN 979-11-86567-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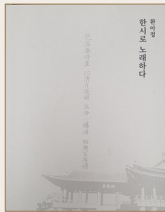
국립공주박물관

30 | **한 권으로 보는 무령왕릉 신보고서 종합편 VIII**
무령왕릉 출토품에 대한 50년의 조사와 연구 결과를 한눈에 조명한 보고서이다. 상세 도판과 해설을 수록하여 쉽고 재미있는 개설서의 형식으로 구성했다. ‘무령’ 코드로 새롭게 정리된 무령왕릉 출토품 전량을 소개하고 조사·연구에 시간성을 부여했다.
210×295mm | 222p | 비매품 | ISBN 979-11-968771-5-6



국립진주박물관

31 | **명나라의 정유전쟁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오희문의 피난일기 『쇄미록』, 명나라 경략 송응창의 전쟁 수행 기록 『경략북국요편』에 이어 임진왜란 관련 국역서를 출간했다.
제1권 155×224mm | 280p | ₩21,000 | ISBN 979-11-670714-6-0
제2권 155×224mm | 424p | ₩28,000 | ISBN 979-11-670714-7-7
제3권 155×224mm | 396p | ₩27,000 | ISBN 979-11-670714-8-4
제4권 155×224mm | 280p | ₩24,000 | ISBN 979-11-670714-9-1



32 | 환아정, 한시로 노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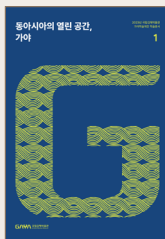
2024년 경남·부산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 학술출판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11월 출간했다. 환아정을 읊은 한시 200여 수 중 조선 문인의 개별 작품, 조선시대 산음(산청)에 부임한 현감의 작품, 어득강의 산음십이영 속 ‘환아정에서 더위를 피하다(환아피서)’를 시제로 읊은 작품을 번역해 수록했다.
220×228mm | 195p | 비매품 | ISBN 979-11-984065-4-5



국립청주박물관

33 | 국립청주박물관 미래 전략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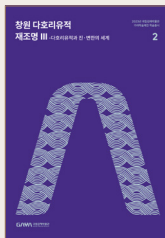
미래 탐색,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23년 ‘국립청주박물관 미래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후속으로 박물관에서 실천 가능한 미래전략 가이드를 발간했다. 1998년 국립박물관 최초로 개관하여 25주년을 맞은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서로 소통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170×240mm | 150p | 비매품 | ISBN 979-11-87698-16-6



국립김해박물관

34 | 2023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1권:

동아시아의 열린 공간, 가야
특별전 <바다를 건너 가야인>^{2023.4.28.~6.25.} 개최에 맞춰 가야사학회와 공동 개최한 2023년 가야학술제전의 첫 번째 심포지엄 학술지이다. 가야의 국제적인 해양 활동 연구를 목적으로 문헌과 고고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야의 국제성과 해양성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190×260mm | 151p | 비매품 | ISBN 979-11-85106-40-3



35 | 2023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2권: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 III- 다호리유적과 진·변한의 세계
영남고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가야학술제전의 두 번째 심포지엄 학술지이다. 창원 다호리유적은 1980년대 처음 조사된 이후 당대 사회·문화상을 대변하는 표준유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당시 동아시아 네트워크에서 다호리유적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190×260mm | 219p | 비매품 | ISBN 979-11-85106-41-0



36 | **2023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3권:**
길들여지지 않은 땅, 길들이는 삶-가야 고지(故地) 선사인들의 삶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가야학술제전의 세 번째 심포지엄 학술지이다. ‘가야 선주민 연구’ 연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선사시대 생업과 취락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통해 가야 선주민의 문화상을 살펴보았다.
190×260mm | 139p | 비매품 | ISBN 979-11-85106-42-7



37 | 2023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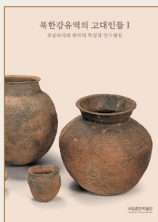
가야 토성의 성격과 의미
2023년 가야학술제전의 네 번째 심포지엄 학술지이다. 그동안 가야의 성 연구는 부진한 편이었으나 최근 조사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비교 검토해 가야 토성의 학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190×260mm | 199p | 비매품 | ISBN 979-11-85106-43-4



국립춘천박물관

38 | 제7회 강원학대회 자료집-

글로벌 시대, 지역 원천자원의 가치
‘글로벌 시대, 지역 원천자원의 가치’를 대주제로 1분과 ‘고지도 속 강원 미래 가치’, 2분과 ‘지역 문화유산, 국립춘천박물관 소장품 자세히 보기’, 3분과 ‘글로벌 시대 지역사 연구의 가치와 역사문화 자료의 활용’, 4분과 ‘지역문화유산의 원천가치’, 5분과 ‘강원도 어촌 문화유산의 원천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190×260mm | 400p | 비매품



39 | 북한강유역의 고대인들 I-

원삼국시대 취락의 특징과 인구결집
국립춘천박물관은 2023년 12월 ‘북한강 유역의 고대인들’을 주제로 원삼국시대 취락 관련 연구현황과 성과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검토한 결과를 학술서로 발간해 지역단위로 대형 취락이 등장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180×245mm 167p | 비매품 | ISBN 979-11-989151-0-8



40 |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 특별공개 연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특별전 <다시 찾은 신라의 빛: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2024.5.14.~7.28.}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자료집이다. 선림원 터의 성격, 보살상의 조성배경,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살펴본 보살상의 의미와 가치, 보존과학적 접근 등 여러 각도의 연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10×297mm | 109p | 비매품



국립나주박물관

41 | 마한사 연구총서 01 현황과 쟁점

마한사 관련 고고학, 고대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주요 연구 쟁점을 정리한 총서이다. 향후 연구 진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문헌 자료의 주제별 연구 성과 및 쟁점을 소개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180×255mm | 373p | 비매품 | ISBN 979-11-977320-4-1



국립청주박물관

간절함을 마주하는 시간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거울, 시대를 비추다> 2025.3.21.~7.20.

거울 안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겨있다. 거울에 태양의 빛이 깃들었다고 믿은 사람들은 거울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신과 소통하려 하였고, 왕과 지배층들은 그것을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삼았다. 또 누군가는 가정의 변영과 자손의 번창 혹은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거울에 새겨 넣었다. 이렇게 거울은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며 변화해 왔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거울, 시대를 비추다>는 ‘제작’, ‘상징’, ‘교류’라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거울 문화와 동북아시아 거울 교류 양상을 폭넓게 소개한다.

제1부 ‘빛을 담다’에서는 청동 거울의 제작 과정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거울이 고대 사회에서 지닌 의미를 살펴본다. 도성, 집터, 제사 터 등지에서 출토된 의례용 거울과 흙, 돌, 납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거울의 의미를 찾아본다. 이어, 파경(破鏡)이라 불리는 깨진 거울과 이를 다듬어 재가공한 가공품, 천에 담아 보관한 거울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당시 거울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귀한 물건이었음을 보여준다.

제2부 ‘권력이 되다’에서는 거울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이 어떤 사회·정치적 배경 속에서 거울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주목한다. 지배층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계통의 거울을 통해 거울이 지배층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이자 중요한 상징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부 ‘문화를 잇다’에서는 거울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 전해진 과정을 따라가며 그 안에 담긴 고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만나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대형 지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뉴경을 비롯한 중국 거울, 왜경, 방제경 등 동북아시아 청동 거울의 출토 현황과 교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울에 새겨진 무늬를 통해 당대 사람들이 품었던 이상과 바람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문화적 교류와 확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빛을 담은 금속, 소중히 여겨지다

청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그 장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청동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즉, 청동 거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곧 부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상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동 거울은 생활도구가 아닌 신성한 의미를 지니며 다양하게 쓰였다. 특히 제사나 의례와 관련된 유적에서 발견되며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자주 출토되었다.

삼한, 삼국시대에는 중국 거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으며 함께 출토된 유물은 당시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준다. 금속으로 제작된 거울은 오랜 세월 보존되어 사람들 손에 전해졌다. 사람들은 거울에 다양한 무늬를 새겨 장식하고 그 안에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표현하였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원하거나(君宜高官, 位至三公) 부귀를 바라고(家常富貴) 자손이 번창



시대를 관통하는 거울 문화와 동북아시아 거울 교류 양상을 폭넓게 소개한다



고대 사회에서 거울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는 제1부 '빛을 담다'



거울을 소유한 사람에 주목한 제2부 '권력이 되다'



고 이견희 회장이 기증한 거울들

1부 주요 전시품
화순 대곡리 잔무늬 거울
 초기철기
 지름 18cm, 무게 655g
 국보
 신수2579



2부 주요 전시품
무령왕릉 출토 의자손수대경
 삼국
 지름 23.2cm, 무게 1.412g
 국보
 무령23



3부 주요 전시품
용강 칠실총 출토 철경과 철제품들
 본관4870, 4871



하기를 바라는(長宜子孫) 마음을 새겨 넣었다. 결국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복이 깃들기를 바랐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다.

청동에서 철까지 시대가 선택한 거울

이번 전시는 지난해 열린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을 순회전 형식으로 이어받아 철경鐵鏡을 포함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 더욱 확장된 시각으로 전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청동 거울에만 주목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철경까지 아우르며 거울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되었는지 조명한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고구려 평남 칠실총 출토 철경이 최초로 공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또한, 국보 화순 대곡리 출토 잔무늬 거울, 무령왕릉 출토 의자손수대경, 고 이견희 회장이 수집한 거울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양한 시대와 지역

의 거울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실 내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교육 체험 공간을 만들어 청동 거울을 직접 만지고 비춰보며 나만의 거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거울, 오늘을 비추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거울 속에는 옛사람들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그들이 품었던 희망과 바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 결국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을 바라며 거울을 마주하였을 것이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새겨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바라보는 거울 속 모습이 언제나 빛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강연으로 만나는 거울 이야기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큐레이터와의 대화'와 함께 심화 강의 '제23기 박물관 연구과정'이 운영된다. '청동 거울 이야기'(4.17), '청동 거울을 가진 사람들'(5.15), '거울 문양에 담긴 고대인의 소망과 시대상'(6.19), '다뉴세문경의 과학적 분석'(7.17)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전시 기간 내내 관람객들에게 더욱 심도 있는 거울 이야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청주박물관 누리집(<https://cheo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김시영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나만의 거울' 만들기 체험 중인 관람객의 모습

쉽고 재미있게 만나는 우리 문화유산!

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물 속 문화유산 활용 교육영상 공개

QR코드를 스캔하면
체험전시물 속 문화유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는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영상을 제작하였다. 유아부터 초등생까지 연령별 눈높이를 고려해 제작하였으며, 어린이 스스로 문화유산을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스토리텔링과 퀴즈, 놀이 활동 등의 재미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영상은 어린이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화유산 카드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효율적이고 올바른 체험 활동을 유도하고, 교육 현장에서 문화유산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상반기에는 유아용 2편, 초등학생용 2편을 박물관 교육플랫폼 ‘모두(MODU)’에 공개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7편의 교육영상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영상은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제작되었을까?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육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있는 체험전시물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지난 2월 3일 공개된 4편의 영상에는 ‘수레바퀴 모양 토기’, ‘말탄 사람 토기’,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백자 달항아리’, ‘고양이와 참새’ 그리고 ‘수박과 들쥐’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연령별 눈높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유아용 영상은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

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 문화유산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화유산과 일상생활을 연결하여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초등학생용 영상은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을 더욱 깊이 탐색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흥미로운 내용 구성과 다양한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유아용으로는 ‘조물조물, 동글동글 도자기’와 ‘야옹야옹 그림 속 동물 이야기’가 제작되었다. ‘조물조물, 동글동글 도자기’는 어린이박물관 캐릭터인 두지와 더지를 활

용하여 도자기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를 쉽고 재밌게 소개하며 도자기 모양 쿠키 만들기 활동까지 가미하여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한층 더 높여준다.

‘야옹야옹 그림 속 동물 이야기’는 옛 사람들이 고양이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고양이와 관련된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초등학생용으로는 ‘도자기 청&백 대전 우승자는?’과 ‘관찰로 알게 된 옛 그림의 비밀’이 제작되었다. ‘도자기 청&백 대전 우승자는?’은 고려의 도예가와 조선의 도예가가 등장해 각 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인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경쟁과 토론을 통해 두 도자기의 특징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관찰로 알게 된 옛 그림의 비밀’은 옛 그림 속 자연물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퀴즈쇼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들이 직접 퀴즈를 풀어가며 문화유산 속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문화유산 교육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플랫폼 모두(modu.museum.go.kr)에서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 비치된 문화유산 카드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감상할 수 있다. 교육영상은 스토리텔링과 퀴즈, 놀이활동 등의 재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어린이박물관 방문 전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자료 활용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반기에는 총 7편의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여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문화유산별 스토리텔링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다.

또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교육 자료의 접근성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글. 유수경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사

봄을 알리는 목련과 굴뚝새

병풍 가득 꽃과 새가 가득합니다.
화가는 첫 폭에 하얗게 피어나는 꽃,
목련을 그렸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듯 그림 속 목련은
그렇게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목련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름다운 자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굴뚝새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하얗게 피어난 목련 사이에
굴뚝새 소리 요란하니 봄이 왔나 봅니다.

글. 민길홍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학예연구사

꽃과 새 花鳥圖
채용신(1850-1941)
1914년
면예 먹, 안료
10폭 병풍, 각 83.0×33.0cm
전주78788



20 ²⁰⁰⁵/₂₀₂₅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

새로 담을 역사의 그릇

박물관 건축에 담은
한국적 조형 언어와 철학을 말하다

설계부터 시공, 건축과 조경을 넘어 차경의 어울림, 벽체와 지붕 등 공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조형 언어에 담긴 철학은 단순한 박물관 건축을 넘어 ‘한국적인 정체성’의 모색이기도 했다.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 열린 마당에서 으뜸홀과 역사의 길로 이어지는 관람 동선의 설계, 재질의 특성을 잘 살린 따뜻한 빛, 산수화의 미감을 살린 야외 정원… 큰 설계부터 작은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용산 이전 2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건축의 설계에서부터 고민과 과정, 박물관 건축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남쪽에서 바라본 국립중앙박물관

참석자

함순섭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윤종균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사회)

전배호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 전문경력관

고민규 전 정림건축 본부장

“새로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성벽 위에 세운 복합문화공간의 꿈

윤종균 용산 새 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역사 정체성의 확립, 전시와 휴게 등 문화 공간의 확대, 국제적 위상을 갖춘 복합 시설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995년 건립추진단은 국제 설계 경기의 주최 측에 어떤 내용을 제시하셨습니까?

함순섭 미군 기지가 이전된 후에 용산을 문화 콤플렉스로 만들자는 거대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외관을 커다란 성벽처럼 설계한 것도 과거 100여 년만에 되찾은 이 땅을 지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이후에는 공간별로 한국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며, ‘한국의 미’는 무

엇이고 ‘한국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간이 대청마루의 느낌을 살린 ‘(열린)마당’일 테죠. 그 외에도 문화다양성을 담아낼 외국실의 복원과 국제 수준의 특별전시실 확보, 두 개의 중점 사항을 넣었습니다.

고민규 건물이 404m라 세워놓으면 정확히 101층 높이예요. 이 거대한 건물에 동서남북 각각의 정면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남북을 열어놓자는 통일의 염원을 담았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함순섭 박물관 곳곳에 세워진 열주^{列柱}는 정문에서 지금의 국립한글박물관 쪽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북쪽으로도 뻗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북측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것이죠.

윤종균 성벽을 닮은 건물은 전통 지리 관념을 반영한 행주형^{行舟形} 건물로 서해로 진출하는 선박 같습니다. 사람이 서쪽 뱃머리에서 앞서 이 끌고, 전시품인 물건을 동쪽에 실은 듯한데, 상징성은 없나요?

함순섭 이전 개관 이후에 붙여진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국제 설계 경기 때 설계자가 제시한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성벽’이었습니다. 덧 붙이면 과거 이곳은 배후습지였어요. 그래서 1925년의 을축년 대홍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넣었죠. 사실 지금은 배수 시설이 좋아져서 극복은 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흙을 쌓아서 튼튼한 지반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왼쪽부터 전배호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디자인 전문경력관, 함순섭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고민규 전 정림건축 본부장, 윤종균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한국 전통 가옥의 '대청마루'의 조형미를 살린 열린광장



상설전시실의 입구인 으뜸홀

산수를 품은 자연과 건축, 박물관 야외 정원과 건물에 담긴 한국적 미감

윤종균 건축 벽면에는 수원 화성과 해인사 장경판전 등 전통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중 남쪽 벽면에 새겨진 훈민정음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고민규 한국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시각적 연출을 고민했습니다. 사선 벽이나 훈민정음 모두 한국적인 특징을 찾아 담아낸 요소들이죠.

윤종균 벽면의 아랫부분이 경사를 이룬 사각 창인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혹은 성벽에서 총이나 화살을 쏘는 구멍인 총안(銃眼)의 각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요?

고민규 맞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옥탑 앞부분도 살짝 사선이예요.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한국적인 디자인 언어로 풀어낸 거죠.

윤종균 숲과 나무, 연못과 폭포까지 갖춘 야외 정원은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까?

함순섭 국제 설계 경기 당시에는 잔디와 나무가 있는 주차장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양으로 바뀐 것은 산수화 느낌을 담자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

입니다. 조산(造山)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정원이 탄생한 셈이죠.

윤종균 산수 정원은 넓은 뜰에 도시에서 유일하게 습지를 갖추고 있고, 미선나무, 히어리와 같은 희귀 수종(希種)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송, 경주 천마총과 연결되는 자작나무처럼 역사성을 담은 나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함순섭 당시 조경직 분들 덕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은 일입니다. 박물관 건물의 규모에 맞는 판단이었고, 그 덕분에 대형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었죠. 둘째는 전국을 돌며 나무를 직접 찾아 심은 것입니다. 예컨대 거울못 식당 북쪽에 있는 단풍나무는 대관령 고랭지 밭 조성 당시 사라질 뻔한 수백 년 된 고유 수종을 조경직 분들이 설악산에서 가져온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나무 기증도 받았습니다. 미르 폭포의 해송은 폐기 직전의 나무들이었고, 자작나무는 입암 시험장에서 버려질 예정이었던 것들이죠. 직접 발로 뛰어주신 많은 분 덕분에 중앙박물관의 야외 정원이 생겨났어요.

조산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산을 쌓으려면 흙이 필요한데 당시 업무 담당자 분

들이 마침 명동의 한 백화점 별관 공사를 위해 파낸 흙을 찾아낸 겁니다. 알아보니 그 흙은 화강암이 부식된 '석비레'라는 깨끗하고 좋은 흙이더라고요. 흙을 주고받았던 재미난 일화도 있죠. 최악의 조건 속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일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빛·재료·동선, 관람 경험을 위한 공간 설계의 미학

윤종균 건물 내장재로 이집트 피라미드 소재인 라임스톤을 사용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고민규 유지 관리를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4~5개월 만에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외산 자재 심의'라는 기준이 생겼죠. "국산 화강석이 있는데 왜 라임스톤이나"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건축과 공간은 그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관람객이 받는 인상과 관람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어요. 따뜻하면서도 공간 분위기를 적절히 잡아주고 또 박물관의 소장품과도 잘 어울리겠다 싶었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배호 내부 자재를 대리석으로 사용한 건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건립 당시의 느낌이나 깨끗함 등이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윤종균 역사의 길 위의 천창은 기와지붕 같고, 벽체의 창은 한옥과 같아서 무릇 과거와 미래의 대화라는 역사적 개념을 느끼게 합니다. 아울러 따뜻하고 세련된 느낌의 빛은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빛과 건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우수한 사례 같아요.

고민규 편안한 관람을 위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을 때 조도의 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열린 마당에서부터 으뜸홀, 역사의 길 그리고 전시실까지 단계적으로 밝기에 순응하도록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조율했죠. **함순섭** 단순한 자연채광이 아닙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너무 어두울 땐 반사판을 활용해 인공조명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했어요. 일조량과 무관하게 실내 조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전배호 으뜸홀 바닥에는 습기 제거를 위해 바닥 열선을 시공했고, 상설전시실의 첫 전시실인 선사·고대관의 바닥은 여느 전시실과 달리 화강석으로 마감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관람객의 동선과 환경을 고려해 기능에 따라 건축 기술과 재료를 달리 적용한 것이죠.

함순섭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관람객이 쾌적하게 전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는 물기에 강한 재질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나무 재질의 우든 블록으로 바닥을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끝까지 지켜낸 요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년, 남겨야 할 것과 바뀌어야 할 것

전배호 박물관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면서 관람객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변화도 조금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박물관의 내부 공간은 뚜렷한 조형성과 대리석 자재의 견고함으로 변화를 주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함순섭 낡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오라^{Aura}가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에는 바뀌지 않아야 할 공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

다. 최근 중앙박물관의 맛이 공간이 리뉴얼되고 전시실 곳곳에 휴게 공간도 마련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의 변화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규 최소한 역사의 길은 절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실의 성격이나 시대의 필요에 따라 변화는 필요하지만, 국립박물관이라는 장소 자체는 그 위상에 걸맞게 '문화유산급' 건축물로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함순섭 요즘 박물관 북쪽에 새로운 건축들이 생기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남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좌우로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처음의 취지가 잊혀진 감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복합문화단지 실현을 박물관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한정 짓지 말자는 겁니다. 대형 주차장 너머까지 박물관이 확보하고, 북쪽으로는 열주를 이어서 전체 공간을 하나로 완성해야 합니다. 예전 미군 기지의 낡은 건물을 어린이 박물관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중앙박물관이 만형으로서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문화유산과 문화시설들을 아우르는 공간 확장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관리도 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과 거울못 식당 주변의 침하로 처지거나 깨진 바닥재 등은 한 번쯤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시점이에요. 하고 나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용자 경험도 훨씬 개선될 테고요.

윤종균 지금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개관과 국립충주박물관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박물관 추진단에 전하고 싶은 조언은 없나요?

전배호 박물관 건축은 명확한 방향성과 콘텐츠를 먼저 수립한 후 공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고민규 중앙박물관 건립 이후 국립박물관 자문을 하며 느낀 점은 유연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앙박물관을 지으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정보들이 국립박물관 내외부에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순섭 박물관 건립은 분명한 목표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침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한계는 존재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박물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충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잘 모으고 활용하며 실현해 줄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 편집팀





작은 조각들이 빛어낸 소중한 가치

영국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의
한국 도편 목록화 프로젝트



글. 로렌 바스 Lauren Barnes
영국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
한국 소장품 담당 큐레이터
Curator of the Korean Collection,
Oriental Museum, Durham University, UK

번역. 김슬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국제교류 전문경력관



도편 목록화 작업

2024년 동양박물관은 2,000여 점의 도편(도자기 조각)으로 이루어진, 한국유물 단일 기증으로는 최대 규모의 소장품을 기증받았다. 해당 유물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주한 영국대사로 재직했던 로렌스 미들턴 Lawrence Middleton CMG 씨의 부인인 실리아 E. 호이 미들턴 Shelia E. Hoey Middleton 씨에게 기증받은 것으로 실리아 씨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덕수궁과 서울성공회성당 옆 주한영국대사관 터에서 수집한 것이다. 많은 도편에는 발견된 지점과 실리아 씨께서 부여한 식별번호 등이 성실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전자기록도 없었으며 크기, 유약의 종류, 생산 시기 등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2024년 봄, 주한영국대사관 터의 역사와 한국 도자의 생산과 활용의 역사에 대해 더욱 많이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수집품에 대한 목록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새로운 소장품의 목록화 및 연구를 위해

박물관 직원들은 세 명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이자 동양박물관 후원회 회원인 케이트 알콕 Kate Allcock, 피오나 클라크 Fiona Clark, 캐서린 메트카프 Katharine Metcalfe와 작업을 해왔다. 봉사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도편이 담긴 총 일곱 개의 큰 상자를 받았는데 각 상자에는 손톱만 한 크기부터 솔이나 그릇 절반만 한 크기까지 다양한 도편이 섞여있었다. 봉사자들의 업무는 각 도편에 소장품 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묘사 및 측정하는 것이었다. 케이트는 “각각의 상자가 새로운 보물을 드러내 보였으며 우리는 패턴이나 특이한 형태를 발견하면 흥분하곤 했다”라고 회상했다. 지난 몇 달간 봉사자들은 도편 목록화 기술을 연마하였고 케이트는 그들이 “각 도편을 측정하고 무게를 재고 자세하게 기술하는 데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도자의 색깔과 형태를 이해하게 되면서 목록화 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 명의 봉사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목록화 역량을 높였으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오나는 “이전에는 거의 잘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고 덧붙이며 ‘문화, 풍습, 시대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도자’는 본 프로젝트에서 그녀가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매주 봉사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공유하며 소장품에 대해 더욱 잘 배울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다. 이들 모두 전반적으로 도자기를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고 그들의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봉사자들이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는 이 귀중한 기증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그 조사 결과를 2026년 한국실 전시 개편 계획과 박물관 온라인 도록에 반영할 것이다. 봉사자들의 작업 덕분에 나 는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의 한국 소장품 담당 큐레이터로서 지난해 5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한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에 참가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의 다른 박물관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목록화 작업을 공유하고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방법을 논의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목록화 작업을 통해 밝혀낸 소장품은 동양박물관에서 진행하게 될 연구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것이다. 조각들은 크기는 작지만 박물관과 봉사자들에게는 확실히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

동양박물관은 더럼대학교 소속으로 통일신라부터 21세기에 걸친 한국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영국 내 최대 규모의 소장기관 중 하나이다. 1950년대부터 수집을 시작했는데, 1990년까지는 한국 소장품이 70여 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1년 영국 성공회 주교 리처드 러트 Richard Rutt와 조앤 러트 Joan Rutt 부부에게 대규모 기증을 받으면서 소장품 규모는 두 배 이상, 2013년 최초의 상설 한국실을 개관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었다. 한국실 개관 이후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한국 유물을 수집하였으며, 현대 작품 수집과 몇 건의 관대한 기증으로 소장품을 발전시켰다. 현재 동양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원을 받아 기



조사결과에 대해 토의하는 피오나와 캐서린



동양박물관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봉사자(왼쪽부터 케이트 알콕, 캐서린 메트카프, 피오나 클라크)

관 최초의 한국 소장품 전담 큐레이터를 고용하여 2026년 한국실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된 한국실에는 도편 일부와 봉사자들의 작업 또한 포함될 예정이다.

에필로그

이번 프로젝트는 동양박물관의 소중한 소장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특히, 목록화 작업에 참여해 준 케이트 알콕, 피오나 클라크, 캐서린 메트카프 이 세 명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수많은 도편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기록하며 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도자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연구와 보존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뜻깊은 여정이었다. 이 소중한 과정에 함께해 준 세 명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필자 소개

더럼대학교 동양박물관에서 한국 소장품 담당 큐레이터로 재직하고 있으며, 맨체스터박물관에서 박물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박물관신문』의 ‘K-뮤지엄’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한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선사·고대관, 시간 위에 다시 세우다

전시 기획부터 유물 보존까지,
2025년 선사·고대관 개편을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

전시를 만든 사람들

고고역사부 김태영·김민철·이나경·이명훈·노형신 학예연구사

유물관리부 조용환 학예연구사

보존과학부 허일권 학예연구사

디자인팀 이현숙 디자인 전문경력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실에서 처음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선사·고대관이 지난 2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구석기 시대부터 고구려까지 방대한 역사를 다루는 만큼, 이번 전시실의 변화에 많은 사람의 손길과 시간이 있었다. 전시 기획자부터 유물을 직접 다루는 보존처리 전문가, 관람객의 동선과 전시실 간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전시 디자이너까지. 유물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놓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전시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박물관신문』이 만났다.

“새로운 이야기, 익숙한 공간에 담다”

전시기획-고고역사부 | 김태영·김민철·이나경·이명훈·노형신 학예연구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하면서도 유물 하나하나의 서사를 엮는 작업. 고고역사부는 전시 구성부터 전시 품 섭외와 운송, 설치까지 전시의 전반을 총괄하며, 이번 개편에 ‘온 인류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자 했다.

Q 이번 개편의 목표는 무엇이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최근 10여 년 동안 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새롭게 발굴한 문화유산이 축적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최근의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모든 관람객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글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교정 작업을 거쳤고, 유물과 현대 작가의 작품들을 함께 배치하여 설명 위주의 공간이 아닌 자연스럽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Q 이번 개편의 주제 ‘삶의 흔적, 역사가 되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A 인류의 탄생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득히 먼 구석기시대 사람들과 우리 삶이 연결될 수 있듯이 우리 삶도 훗날에는 역사의 한 조각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Q 새로워진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이 경험하게 될 변화는 무엇인가요?

A 구석기실로 들어가기 전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관람객은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방대한 지구의 역사 속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인류의 시간, 그 서사 안에서 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입부 공간은 일종의 광장과도 같은 공간인데, 이곳에서 관람객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선사 영역과 고대 영역 전시실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A 새롭게 조사되고 발견된 유물을 기존의 중요 전시품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색다르게 연출했을뿐만 아니라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유물을 감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다호리 목관 진열장이 대표적이인데, 목관과 함께 출토된 유물과 정보 영상을 하나의 공간에 전시했어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편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나온 다양한 고고학 성과를 반영했습니다. 과거 전시실과 어떤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심을 가지고 전시장을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왼쪽부터 허일권(보존과학부), 김민철(고고역사부), 조용환(유물관리부), 이나경(고고역사부), 노형신(고고역사부), 김태영(고고역사부), 이현숙(디자인팀), 이명훈(고고역사부)



“보이지 않게, 가장 안전하게”

유물 격납-유물관리부 | 조용환 학예연구사

유물 격납은 전시의 시작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다.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지만, 유물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작업이다. 유물의 재질, 크기, 상태를 고려해 가장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이들의 손길이 있어 야 전시는 비로소 완성된다.

Q 유물 격납은 어떤 일인가요? 과정도 궁금합니다.

A 출격납은 전시실에 있는 소장품이 수장고로 돌아가거나, 반대로 수장고에 있는 전시품이 전시실에 전시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격납은 유물관리부 업무이고 각 전시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전시 주관 부서에서 수장고에 보관중인 소장품 중 전시 예정 목록을 보내 주면 유물관리부 직원이 소장품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전시 주관 부서와 일정을 협의하고 출격납이 이뤄지게 되죠.

출격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장품 안전입니다. 주관 부서가 원활히 전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소장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동 및 전시품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고민합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요청이 오다 보니 모든 절차와 진행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선사·고대관의 전시품 중에는 작고 다양한 파편들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A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은 각각에 부여된 고유 번호를 가지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합니다. 크기가 작은 소장품은 고유 번호가 있더라도 크기가 큰 소장품에 비해 관리가 어렵지요. 화살촉이나 구슬처럼 형태가 비슷한 것들은 헛갈릴 수 있으니 몇

번이고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Q 이번 전시에 소개된 전시품 중 주목할 만한 유물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제 전공이 고구려 고고학이다 보니 고구려실에 새롭게 전시한 깃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발굴조사로 출토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람객에게 첫 공개거든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깃발을 실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조선실에 전시하는 팔주령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에서 짧게 공개해서 아쉬웠는데, 이번 전시로 상설전시실에서 상시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주령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전시의 밀도와 깊이를 더해 주는 것 같아요.

“유물은 시간을 견딘 존재입니다”

보존처리-보존과학부 | 허일권 학예연구사

수천 년을 견뎌온 유물에게 전시실 개편은 또 한 번의 변화이고 도전일 수 있다. 이동과 설치, 조명과 온습도 변화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보존과학부는 유물이 무사히 새 공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Q 전시 준비를 시작하고 유물의 보존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하게 되나요?

A 유물이 전시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점검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기존 보존처리 이력이 있는 경우, 보관 기간 동안 새로운 손상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기존에 사용한 접합제나 복원제가 열화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죠. 유물을 처음으로 전시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안정적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 결과에 따라 재질별로 다양한 과정의 보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선사·고대관은 인류의 시작점을 다루는 전시이다 보니 금속 기술의 시작과 발전을 조명하는 철기와 청동기 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덕분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상설전시실 개편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금속 전시품 전체를 점검하고 보존처리하여 전시실에 올린다는 것은 금속 보존처리 담당자로서 뿌듯하고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Q 이번 개편에서 유물 보존을 위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상설전시실은 소장품 보존 환경 기준에 따라 운영하지만, 서로 다른 재질의 소장품을 함께 전시하고 관람객을 위한 환경도 고려해야 해서 수장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 개편에서는 표면의 손상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전시 전에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시 담당자와 함께 소장품의 역사적 의미, 발굴 과정, 중요한 형태적 특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열 방식도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장품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졌고, 전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Q 보존처리를 마치고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고구려실의 깃대와 망태형 철기는 국립박물관에 귀속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소장품입니다. 이들 전시품은 발굴 후 보존처리가 진행되었지만,



장기간 안전하게 전시하기 위해 추가 보존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서울 아차산에서 출토된 깃대는 길쭉한 직선 봉 형태로, 총길이는 196cm에 달합니다. 길고 가는 깃대를 전시하기 위해 재질 강화가 필요했지요. 또한 경기도 연천에서 출토된 망태형 철기는 납작하고 긴 철대가 교차하는 독특한 구조가 특징인데 장기간 받게 될 하중에 대비하여 고정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공간에 역사를 담다”

전시 디자인-디자인팀 | 이현숙 디자인 전문경력관

조명, 동선, 색깔까지 선사·고대관의 모든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시 디자인은 고정된 구조와 공간 안에서 전시의 철학과 이야기를 ‘보이는 언어’로 공간에 풀어내는 일이다.

Q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2025년 선사·고대관을 구상하며 가장 깊이 고민한 것은 ‘익숙한 전시품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것인가’였습니다. 전시품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싶었죠.

오랜 논의 끝에 ‘지층’이라는 개념을 전시 공간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지층이란 단순한 자연의 단면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시간이 축적된 거대한 기록이며,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아래에는 수천, 수만 년 삶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있고, 지금의 우리는 그 누적된 시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사·고대관은 수동적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을 따라가며 우리 기원을 탐색하는 장으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진열장을 넘어 과거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 등 유물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충실히 전달하는 동시에,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연출했습니다.

Q 기존의 전시와 차별화된 공간 설계를 위해 동선과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A 기존 전시실이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했다면, 개편된 선사·고대관은 중앙을 축으로 삼아 유연한 탐색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삶의 흔적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했죠. 각 전시 공간에서는 중심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당시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연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맞물리며,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Q 어린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콘텐츠가 눈에 띄는데요, 포용적인 전시 디자인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나요?

A 선사·고대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시작점으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뿐더러 우리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전시실에 방문하는 다양한 관람객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감상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탐색하는 전시 환경 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손끝으로 유물을 느낄 수 있는 촉각 전시 체험 코너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전시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하’ 공간을 마련했죠. 또한, 궁금한 전시품을 더욱 깊이 탐색하고 학습하도록 영상과 그래픽 자료들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특히 신석기 인골, 동삼동 패총, 다호리 목관에는 숨겨진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전시품의 학술성과와 발굴자료가 많이 담겨있어요. 전시품과 역사적 맥락에 몰입하면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픽과 영상, 조명도 다채롭게 활용하였습니다.

정리. 편집팀

나는 진묘수! 여기는 어디?

국립공주박물관이 만든 그림책, 진묘수가 들려주는 무령왕릉 이야기



국립공주박물관 귀염둥이 ‘진묘수’

국립공주박물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령왕릉’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학창 시절에 와 봤을 직한 곳,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한 번쯤은 와 봤던 곳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또는 좀 더 커서 생각해 보면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딱히 무엇을 봤는지’, ‘뭐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국립공주박물관에 대한 추억으로 ‘진묘수’를 꼽고 있다. 무령왕릉을 지켜주고 왕과 왕비의 승선을 도왔다는 진묘수, 그 모습은 통통한 돼지의 모습을 하고 머리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요상한 뿔까지 꽃고 있다. 진묘수의 치명적인 매력은 토실토실한 뒤탄이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진묘수가 무덤을 지키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절로 나온다. 그야말로 국보 진묘수는 박물관 관람자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진묘수 디자인의 굿즈를 찾고 있다.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에서 그림책 주인공으로

최근에 어린이박물관을 짓기 위해 유럽 박물관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 다양한 어린이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시설도 보고 콘텐츠 구성도 조사했다. 유명한 몇몇 박물관 가운데 네덜란드의 일명 미피박물관인 위트레흐트 박물관Nijntje Museum, 스웨덴의 유니바켄Junibacken은 동화책에 등장하는 공간을 어린이박물관으로 구성한 곳이었다. 또한 어린이 시설 빌라 지브라Villa Zebra와 어린이 책박물관Children's Book Museum 역시 책을 소재로 동화책에 등장하는 공간과 주인공을 어린이 시설로 풀어내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익숙한 내용과 그림책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공간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었다. “바로, 책이야!” 내가 20년 가까이 외쳐왔던 ‘무령왕릉’은 역사에 등장하는 문화유산으로 웬지 어렵고 먼 옛날이야기,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동화책으로 만난다면 어떨까? 어린이들이 무령왕릉을 동화책으로 보고 흥미를 갖게 하고 싶었다. 서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다. 한 번 보면 다시 보고 싶은 무령왕릉 출토 귀염둥이 진묘수가 주인공이 되어 무령왕릉과 무령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글을 썼다.

나는 진묘수! 여기는 어디?

동화책에 등장하는 진묘수는 귀엽고 사랑스럽다. 모습만 귀여운 것이 아니라 행동도 귀엽다. 깜깜한 무덤을 무서워하고 스스로 싸워야 할 귀신들조차 겁을 내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또한 자신이 지켜야 할 무령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무덤 속 왕의 장식품들에게 무령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듣게 된다. 호기심이 많아 무령왕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진묘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 왕과 왕비의 승선을 완벽하게 도와 백제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으로 도달하게 된다. 동화책의 하이라이



트는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진묘수와 왕과 왕비가 도달한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이다. 그곳은 2025년의 나도 살고 싶은 동화 속 세상이다. 특히 동화책에 수록된 그림에는 무령왕릉 발굴 50년의 연구 성과를 녹여 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행히도 일러스트 작가님이 훌륭하게 표현해 주셨다. 작가님께 제공할 참고용 일러스트레이아웃을 만들면서 섬세한 자료들이 국립공주박물관에 풍부하다는 점에서 새삼 감탄하게 되었다. 이는 무령왕릉 발굴 50년 동안 연구 성과가 차곡차곡 쌓인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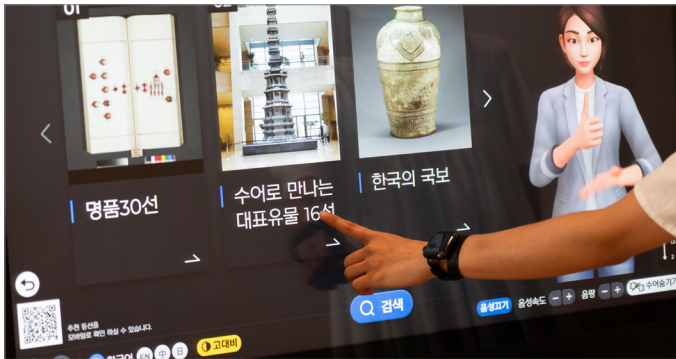
그림책이 현실이 되다

동화책 「나는 진묘수! 여기는 어디?」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도서관 1,600여 곳에 무상 배포하여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럽에서 봤던 어린이박물관이나 어린이 시설 사례처럼 2025년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체험실을 그림책 속 모습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립공주박물관에 조성될 어린이박물관에서도 그림책 속 세상을 현실로 구현하고 싶다. 그림책에서 본 세계가 실제로 펼쳐진다면 어린이들은 우리 문화유산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글. 안민자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맞춤형 전시 안내 스마트 키오스크 접근성 기능 개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시 안내 스마트 키오스크를 관람객의 요구에 맞춰 유형별 접근성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사업으로 2023년부터 설치되어 3년째를 맞이하는 스마트 키오스크는 국립중앙박물관 4대, 소속 5개 박물관(경주, 광주, 부여, 춘천, 나주) 8대 등 현재 총 1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키오스크는 휠체어 관람객을 위한 자동 높이 조절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아바타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키오스크에 QR코드를 연동하여 챗봇 기능을 통해 개인 모바일 기기로 박물관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키오스크가 설치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한 환경이 개선되었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용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동안 관람객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람객 편리성 제고와 수어 인식을 개선 등 맞춤형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해왔다. 먼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맞추어 키오스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물리적 위치, 화면 비율 등 전반적인 기능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령 표준 만족을 위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농인(수어사용자) 관람객들을 위한 수어 아바타의 수어 인식을 제고에 중점을 두어 수어 인식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여 수어 인식 품질평가에서 인식 정확도를 90% 가까이 향상시켰다.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개발된 스마트 키오스크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관람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스마트 키오스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진주박물관, 기획특별전 〈수군, 해전〉 공동 개최 관련 업무협약 체결

국립해양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과 협업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 3월 17일 국립해양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과 함께 2025년 기획특별전 〈수군, 해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시 기획과 자문, 전시품 대여, 콘텐츠 제작, 공동 홍보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시는 광복 및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각 기관의 연구 및 전시 기획 역량을 결합하여 수군, 해군, 해전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7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고려와 조선 수군과 해전을 조망하는 전시가 진행되며, 11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해전을 조망하는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세 기관이 오래전부터 우리 바다를 지켜낸 수군과 해군의 역사, 해전의 중요성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한 만큼,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김해박물관, ‘뮤지엄 스테이지’ 개최

3월 패브릭오브제 가족극 〈코 잃은 코끼리 코바〉 공연



국립김해박물관은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3월 8일 강당에서 '뮤지엄 스테이지' 행사를 개최하였다. '뮤지엄 스테이지'는 박물관을 무대로 다양한 공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봄을 맞아 패브릭오브제 가족극 〈코 잃은 코끼리 코바〉가 포문을 열었다. 이야기꾼의 책공연의 〈코 잃은 코끼리 코바〉는 방 안에서 놀다 발견한 뼈

죽 튀어나온 바지 주머니 모양이 불러일킨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웃가지와 신발 등 여러 생활용품들의 변형놀이와 이야기꾼이라는 요소로부터 탐구된 작품이다. 〈코 잃은 코끼리 코바〉는 '2025 아시테지 겨울축제'의 대표 공연 선정작이자 '2025 서울어린이연극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코를 잃은 코바와 이로 인해 드러나는 여러 동물 군상 속에서 삶의 시각을 넓힐 수 있게 하였다.

2025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운영

제주 넘어 만난 세계사: 고대 이집트부터 메소아메리카까지

2025.3.26~11.26.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4:00~16:00



국립제주박물관은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025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주제는 ‘제주 넘어 만난 세

계사: 고대 이집트부터 메소아메리카까지’이며 총 9개 강좌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인류 진화와 선사 문화(장용준 국립진주박물관장), 그리스·로마의 조각과 건축(김혜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고대 이집트(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연구소장),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문화(윤성덕 연세대학교 교수),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권영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슬람 미술(이희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무역 도자(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메소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송영복 경희대학교 교수), 동남아시아의 미술(노남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이다. 이 강의는 성인 280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제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강의로 섬 제주를 넘어, 보다 확장된 시선으로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립춘천박물관, ‘인문예술 힐링 강좌’ 프로그램 운영

인류의 오랜 벗 음악을 탐구하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인류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9일부터 2025년 ‘인문예술 힐링 강좌’를 15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현대 박물관이 추구하는 시대와 분야를 잇는 ‘융합’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매년 새로운 주제로 ‘인문예술 힐링 강좌’ 프로그램을 기획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인류와 음악’을 주제로 인류의 오랜

벗인 음악을 다각적으로 탐구하는 강좌 15개를 마련하였다. ‘문화유산에서 찾아보는 인류와 음악의 공존’, ‘전문가의 음악 답론’, ‘위안과 용기를 주는 음악의 가치’를 탐색하는 폭넓고 심도 있는 강좌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참가는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강의 당일 박물관 강당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국립춘천박물관을 찾는 지역민이 ‘문화유산과 나와의 연결성’을 찾고 박물관에서 사색하여 위안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춘천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역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국립나주박물관 역사 여행

전남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 대상 박물관 교육 운영



국립나주박물관은 나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국립나주박물관은 2013년 개관 이후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전시실의 문화유산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남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날 예정이다. 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는 국립나주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신촌리 금동관(국보)을 유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협동형 놀이 교구인 ‘열려라, 독널’은 학급별로 제공되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자유로운 사후 놀이 활동이 가능하다.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은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청 학교가 국립나주박물관에 방문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전시실에서 직접 찾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박물관에서 찾은 나의 꿈’은 박물관 학예연구사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 체험을 통해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전라남도 거점 국립박물관으로서 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참여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섬 지역 특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섬 지역 학교와 함께 하는 박물관 역사 여행’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라남도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박물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박물관 인사동정(2025.2.18.~2025.3.17.)				
보인	2025-03-10	학예연구관	이정근	국립중앙박물관장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
전입	2025-02-24	시설주사보	주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2025-02-26	시설주사보	심우용	한국정책방송원 →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5-03-01	행정주사보	노주현	국립한글박물관 휴직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2025-03-04	행정주사	이은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 정책실 해외홍보정책관실 →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전출	2025-02-24	시설주사보	김대민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2025-02-26	공업주사보	남상구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한국정책방송원
	2025-03-01	행정사무관	이수진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실
전보	2025-03-04	행정서기보	구민지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현대미술관
	2025-02-25	전문경력관 나고	김연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수습 임용	2025-02-26	행정7급 채용 후보자	기유나	수습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5-02-26	행정7급 채용 후보자	김윤구	수습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수습 근무	2025-03-04	행정9급 채용 후보자	김소현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한국정책방송원
복직	2025-02-28	행정주사보	박인숙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직
	2025-03-01	행정주사보	윤선진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직
휴직	2025-02-23~2026-02-22	전문경력관 나고	최훈이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 휴직연장
	2025-03-01~2025-12-31	학예연구사	송현경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 휴직
명예 퇴직	2025-03-04~2025-09-30	시설주사보	홍지영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휴직연장
	2025-02-28	행정주사보	박양규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5-02-28	행정주사보	이영애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특별전 상설전 어린이박물관

	4 APRIL	5 MAY	6 JUNE	7 JULY	8 AUGUST
중앙	+ - ÷ ×(알기 쉽기 잇기), 문화유산 속 마음 2024.11.19.~				
	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2025.4.30.~9.14.				
	〈조선 전기 미술(가제)〉 2025.6.10.~8.31.				
경주	〈반짝반짝 신라, 두근두근 경주〉 2018.1.26.~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5.5.3.~8.24.				
광주	〈조물조물 꿈을 빛는 도자기〉 2024.1.2.~				
전주	〈채옹신과 근대〉 ~2025.4.27.				
	서예문화실 재개관 2025.6.5.~				
대구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물 2024.12.6.~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 2024.7.9.~2025.6.29.				
부여	〈Hello 향로! 백제금동대향로의 초대〉 2025.1.2.~				
	육외전시장 재개장 2024.8.26.~				
공주	〈산화코발트, 기증품에 스며든 푸른빛〉 2025.4.8.~2026.6.28.				
	〈왕과 왕비의 보물을 찾아라〉 2025.1.2.~8.10.				
	국가귀족유산 미리보기 〈우리지역 문화유산 재발견〉, 〈아름집중 문화유산〉 2024.11.23.~				
진주	〈육외 석조문화유산 정원~수호의 정원〉 2024.9.10.~				
	〈진주목과 진주사람(가제)〉 2025.5.20.~8.24.				
청주	국가유산 속 금속 이야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영유아체험실) 꼬마 친구들의 박물관 운동회				
	〈거울, 시대를 비추다〉 2025.3.21.~7.20.				
김해	〈크리스탈(水晶) 가아(加耶)〉 2025.5.19.~7.31.				
제주	〈안녕, 제주!〉 2021.11.26.~				
	〈동자상, 조각 정원〉 2022.11.11.~				
춘천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 2024.8.13.~				
	〈이상향으로의 초대~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				
나주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1.~				
익산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 2025.4.29.~7.25.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2025.5.25.				
익산	〈미륵사지 중국도자〉 2025.6.3.~8.31.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2025.5.25.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중앙	〈공간 오감〉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4.1.(화)~4.29.(화) 매주 화·목·토 10:00~11:30 / 14:00~15:30	공간 오감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보존과학자-	4.2.(수)~4.30.(수) 매주 월·수 10:00~10:40 / 11:00 ~11:40	스튜디오 몬(M:ON)
	[유아 단체] 손으로 만나는 옛날 물건	4.29.(화) 10:20~11:10	어린이박물관 속속배움터
	특별전 〈마나 모아나〉 그림책 및 오디오가이드	4.30.(수) 상시	특별전시실
	문화어울림(병원학교) 교육-박물관 문화탐험대	4.9.(수), 4.16.(수), 4.23.(수) 14:00~15:00	어린이병원학교
경주	4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4.30.(수) 17:00~17:30	신라역사관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4.5.(토), 4.12.(토), 4.19.(토) 10:00~12:00	수목당
광주	무력무력! 문화유산 더하기+	상시	어린이박물관
	나의 짝궁 문화유산 뽑기	상시	어린이박물관
	속속! 꼬마 도공 탐험	4.23.(수), 4.30.(수)	어린이박물관
	박물관은 내 친구	4월 중	상설전시실 및 체험학습실
	제19기 광주어린이박물관학교	4.12.(토), 4.26.(토)	대강당 및 체험학습실
	고려청자 몽타주	4.15.(화), 4.22.(화), 4.29.(화)	체험학습실
전주	박물관에서 꿈꾸는 희망	4월 중	체험학습실
	Museum for Foreigners	4월 중	체험학습실
	상자가 열리면	평일 10:00~13:00	열린공간 온
	전북에 있는 우리마을 보물찾기	4월 매주 토·일 10:00~12:00 / 14:00~17:00	본관
	[유아 단체] 개구쟁이들의 박물관 여행	4.1.(화)~4.29.(화) 매주 화·목 10:30~11:30	꿈마루
대구	[초등 단체] 교과서 속 문화유산	4.2.(수)~4.30.(수) 매주 수·금 10:00~11:30	문화사랑방·강당
	[관람객] 문화유산 그림단추	4.5.(토)~4.26.(토) 매주 토 14:00~16:00	해솔관 로비
부여	4차 온(ON) 가족 신선놀음	4.25.(금)~4.28.(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온라인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전! 백제금동대향로 박사'	4.1.(화)~4.30.(수)	온라인
	보고 듣고 느끼는 호기심 박물관	4.15.(화), 4.25.(금) 10:00~11:30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4월 중 예약제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향로 속 친구와 인사해요!	4월 중 예약제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공주	한국의 색·향·미	4월 중 예약제	교육실
	희망박물관 더불어 좋은 세상!	4월 중 예약제	교육실
	유 퀴즈? 관찰하GO 생각하GO	1.2.(목)~12.31.(수)	상설전시실
진주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백제 무령왕릉	3.27.(목)~7.17.(목)	온라인
	2025 지역문화유산찾기 〈교과서에서 나온 문화유산〉	4.1.(화)~11.30.(일)	유적지 현장 및 공립박물관
	무령왕릉 교구상자 대여 〈무령왕이 되어보자〉	4.1.(화)~12.19.(금)	신정 학교
	모두 같이 즐겨요	4.4.(금)~11.28.(금)	세미나실, 전시실
	제21기 상반기 박물관대학 〈진주, 천년을 이어오다〉	4.17.(목), 4.24.(목) 14:00~16:00	강당
청주	제14기 진주어린이박물관학교 〈내 미래 직업은 박물관 '큐레이터'〉	4.5.(토) 4.19.(토) 4.26.(토) 9:30~11:30	교육실
	뽕잔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4월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역사문화홀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4월 매주 수·금 10:00~11:0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전시실
	조선 수군 체험	4월 매주 화~금 10:00~17:0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김해	박물관에서 꿈을 찾다	4월 매주 화~금 10:00~12:00	강당, 전시실
	토요박물관학교	4.19.(토)	세미나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4.30.(수)	상설전시실
나주	[유아 단체] 가야건국설화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	4.4.(금), 4.11.(금)	어린이박물관 인형극장
	[초등 단체] 가야건국설화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	4.17.(목), 4.24.(목)	어린이박물관 인형극장
	안녕, 가야!	4.8.(화), 4.22.(화)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익산	2025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4.30.(수) 14:00~16:00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탐구생활	4월 중 화~목	교육실
	보급형 교육상자 대여	4월 중 상시	각급 학교
	오명가명 박물관	4월 중 상시	교육실
춘천	[관람객] 체험공간 〈문화놀이터〉	상시	문화놀이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산책 〈춘박 명품 돌아보기〉	4.30.(수)	상설전시실
	단체 대상 상설전시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처음 만나기〉	4.1.(화), 4.2.(수), 4.4.(금), 4.8.(화), 4.9.(수), 4.11.(금), 4.15.(화), 4.16.(수), 4.18.(금), 4.22.(화), 4.23.(수), 4.25.(금), 4.29.(화), 4.30.(수)	전시실, 속속배움터
익산	[유아]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	4월 매주 수 10:00~11:20	체험학습실, 전시실
	[초등/청소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4월 매주 화·목·금 10:00~11:30	체험학습실, 전시실
	[소외계층] 함께 가요, 박물관 나들이	4월 매주 화~금 13:30~15:00	체험학습실, 전시실
	[섬 지역] 섬 지역 학교와 함께 하는 박물관 역사여행	4월 매주 월~금 자율	전남 섬 지역 학교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4월 매주 토 10:30, 14:00, 16:00	어린이박물관
익산	[가족] 종이풍선에 담긴 문화유산	4월 매주 일 10:30, 14:00, 16:00	어린이박물관
	구석구석 미륵사지 탐험대	4.5.(토)~4.26.(토) 매주 토	어린이박물관
	박물관 속 고도 익산 여행	4.5.(토)~4.27.(일) 매주 토·일	상설전시실
익산	학교에서 만나는 미륵사지	4.25.(금)~12.19.(금)	각급 학교

국립중앙박물관
몏즈(MU:DS) BEST 5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국립중앙박물관 몏즈는 무엇일까?
인기상품 BEST 5를 소개한다.



1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유물 반가사유상을 몏즈로 제작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이다. 부드러운 곡선과 간결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반가사유상을 미니어처로 만나 보자.
크기: 65×84×155mm
소재: 폴리우레탄 레진
판매가: 65,000원

2 석굴암 조명
석굴암을 3D 프린트해 입체적으로 담아낸 조명이다. 본존불의 후광(작은 빛)을 통해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하면서 기하학적 비례를 갖는 건축미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크기: (소) 80×76×60mm, (대) 128×122×96mm
소재: 바이오플라스틱, 3D 프린팅, LED 조명
판매가: (소) 46,000원, (대) 106,000원

3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
국립중앙박물관 <평안감사를 환영하는 잔치(平安監司宴宴圖)> (덕수5769)에 등장하는 취객선비 3인방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변색 소주잔 세트이다. 잔에 차가운 술이 담기면 선비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며 즐거운 술자리 분위기를 연출한다.
크기: 46×44×58mm
소재: 유리
판매가: 26,000원

4 청자 잔세트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고려청자를 활용하여 국립박물관 상품 브랜드 몏즈와 심보근 작가의 도자기 브랜드 무자기(MUJAGI)가 협업하여 제작한 상품이다. 벽옥처럼 푸르고 수정처럼 영롱한 고려청자의 매력을 일상에서도 향유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크기: 40~48×65mm, 50ml
소재: 청자
판매가: 39,000원

5 금동대향로 미니어처
최첨단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정교하고 가볍게 제작된 금동대향로 미니어처이다. 인센스, 모기향 홀더 및 사탕 보관 등 실용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품으로 일상의 공간에 유물의 아름다움을 더해보자.
크기: 132×127×300mm
소재: 레진, 컬러도색, 3D 프린팅
판매가: 99,000원



구매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 또는
온라인 뮤지엄숍
www.muds.or.kr

2025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16회	18:00~18:30		19:00~19:30	
4.2.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선사·고대관	세계문화관
	청동 기술의 정점, 다뉴세문경	조선시대의 불교조각	고대 한국과 일본의 교류	에도 마지막 불사 <small>佛師</small>
	청동기실(103호) 보존과학부 박학수	불교조각실(301호) 유물관리부 박아연	가야실(107호) 유물관리부 이동관	다카무라 고운(高村光雲)의 기예천 일본실(310호) 전시과 류승진
817회	18:00~18:30		19:00~19:30	
4.9.	선사·고대관	서화관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화려한 금제품,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서울을 그린 그림	낙랑 문화의 형성과 변용	상형청자
	신라실(108호) 보존과학부 노지현	서화실(202~4호) 미술부 이해경	고조선부여삼한실(104호) 고고역사부 이나경	청자실(303호) 교육과 강경남
818회	18:00~18:30		19:00~19:30	
4.16.	중·근세관	어린이박물관	기증관	세계문화관
	종소리의 과학	재질로 보는	박물관과 나를 잇다	중국회화로 본 문인 <small>文人</small> 취향
	고려2실(116호) 보존과학부 이승은	문화유산 속 마음 어린이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과 이민수	기증2실(207호) 교육과 조혜진	중국실(309호) 세계문화부 김경은
819회	18:00~18:30		19:00~19:30	
4.23.	선사·고대관	서화관	중·근세관	조각·공예관
	삶과 죽음의 경계, 고구려의 무덤	조선 말기 이후의 서화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	금속으로 만든 불상들
	고구려실(105호) 유물관리부장 장은정	서화실(202호) 미술부 김승익	조선1실(117호) 유물관리부 정다희	불교조각실(301호) 미술부 김지호
820회	18:00~18:30		19:00~19:30	
4.30.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선사·고대관	기증관
	가야와 순장	범종 다감각 체험 '울림'	삼한의 철기문화	유강렬과 현대판화
	가야실(107호) 유물관리부 이지원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 (302·303호) 미술부 임진아	고조선부여삼한실(104호) 고고역사부 김민철	기증4실(205호) 디자인팀 김미소



webzine.museum.go.kr

표지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 각지에서 현지 관람객을 만나며 새롭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성취가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국외 박물관 특별전입니다.
올해는 미국 덴버와 독일 드레스덴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 다양성을 함께 나누고자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문화유산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